

“확고한 방산 역량으로 평화 지키고 지속 성장 견인”

이 대통령, 범정부적인 역량 결집 당부
예산 투자·제도 혁신·글로벌 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방산의 수주 잔액이 상반기 100조 원을 넘어서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 200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

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의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일은 유엔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이라며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미 기자



독도 위해 피운 태극기 꽃 독도의 날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태극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달러·엔 외평채 17억 달러 발행 성공 역대 최저 가산금리...“펀더멘털 성숙”

사상 첫 3대 기축통화 한 해 모두 발행

정부가 총 17억 달러 규모의 외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달러화 표시 10억 달러, 엔화 표시 1100억 엔(약 7억달러) 씩이다. 달러 외평채는 전액 5년 만기물로, 엔화 외평채는 2년·3년·5.25년·10년 만기물로 나눠 발행했다.

특히 달러 외평채는 미국 국제 대비 가산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0.17%포인트)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로, 2023년 엔화 외평채보다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미 국제채와 비교해 우리 외평채를 처음으로 0.10%포인트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한 차원 성숙했다는 의미”라며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다른 기관의 채권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낮다는 점에서도 한국 경제 신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우량 채권으로서

지위도 더욱 다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달러화·엔화 표시까지 올해 총 34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으로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에 14억 유로(약 17억 달러)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1998년(40억 달러) 이후로 최대 규모다. 당시에는 외환위기로 부라부라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대외신인도를 한 단계 제고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사상 최초로 3대 기축통화(달러·유로·엔) 표시 외평채를 한 해에 모두 발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우리 외평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이른바 G3, 세계 3대 금융시장 모두에서 확인하고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도 다 변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앞두고 우리 외평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9월에는 미국 뉴욕,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각각 ‘대한민국 투자 서밋’과 ‘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미·중 경쟁 심화 속 우리의 대응 방안은...

육군협회, AROKA 고위 리더십 포럼
산·학 100여 명 참석, 국제 정세 전망

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는 23일 “협회 이사진, 학계 전문가, 방위산업 관계자, 미·중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5년 2차 AROKA 고위 리더십 안보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최근 미·중 경쟁 심화와 갈등 양상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중 관계 평가와 전망’을 이번 포럼 주제로 삼았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트럼프 2기 미·중 경쟁 전망’을 주제로 세계 유명 연구소의 미래 미·중 경쟁 전망을 조망하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가능성 및 우리의 대비 등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발제한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현실화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태세 변화 가능성 등을 짚었다.

이 밖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대전략과 미·중 패권 경쟁의 특징,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장은 중국군의 지능화 발전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가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2025년 2차 AROKA 고위 리더십 안보포럼’에서 권오성(앞줄 왼쪽 다섯째) 육군협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협회 제공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토의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권오성(예비역 육군대장) 육군협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안보 현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의제를 선정해 포럼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